

옴부즈맨 칼럼

언론 본연의 기능 보호돼야

이번으로 도합 세 번째 중앙일보 옴부즈맨 칼럼을 쓴다. 일간지에 칼럼을 쓰는 일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기에, 지난 9월 말 한 달에 한 번 이 난의 필자가 돼 달라는 중앙일보의 권유를 별 생각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은 이러한 나의 결정이 매우 순진하고 경솔한 판단이었음을 뼈아프게 깨닫게 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일인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쓴 두 번의 칼럼은 모두 최소한 겉으로는 중앙일보의 보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1월 1일에는 '언론장악' 문건의 공개와 관련해 중앙일보가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썼고, 11월 29일에는 옷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앙일보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중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썼기 때문이다.

이 두 번의 평가 덕택에 나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언제부터 중앙일보의 앞잡이가 됐느냐'는 진담반 농담반의 힐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주위의 평가에 대해 일일이 항변하기도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싶어 지금까지는 '잘 보여야 또 쓰게 해주기 때문'이라며 대충 얼버무렸다.

그러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나름대로 정리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다름 아닌 중앙일보 내부의 반응이다. 특히 옴부즈맨 칼럼을 담당하는 기자는 내용이 너무 긍정적이라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며 보다 비판적으로 써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억울한 생각이 드는 부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지금까지 쓴 두 번의 칼럼은 모두 중앙일보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내용뿐이었던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선, 첫 번째 칼럼은 중앙일보가 동료 신문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주의깊은 독자라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칼럼도 시러깊은 독자라면 중앙일보가 일간지의 생명인 '여론의 선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내용임을 얼마든지 간파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간접회법'으로만 중앙일보를 비판하는가. 통상 옴부즈맨 칼럼은 공개적이고 직설적인 방법으로 신문의 내용을 비판하는 마당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두고 나로서는 가장 많은 고민을 했다. 특히 사장의 구속을 전후한 중앙일보 사태의 파장과 올해 후반기 혼미스러운 정국의 전개가 서로 맞물려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나는 칼럼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언론 본연의

기능을 보호'하는 내용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런 까닭에 보기에 따라서는 '중앙일보의 앞잡이'와 같은 내용을 기고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칼럼이 '중앙일보의 앞잡이'로 평가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외부의 뜨내기 필자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보호하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인 짝사랑이 만들어낸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일은 무관심이지 짝사랑은 아니다.



柳錫春
연세대 교수
사회학과

필자의 칼럼 두편은 여론선도 방향을 지적 일부서 오해 없길